

KIA 타이거즈, 이러다 또 우승할라... 빈틈없는 전력 완성

외국인 트리오 · 양현중에 베테랑 FA 김주찬도 잔류
챔피언 전력 그대로... 윤석민 부활 · 유망주 성장 기대

베테랑 자유계약선수(FA) 김주찬까지 붙잡은 KIA 타이거즈가 2018시즌 챔피언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왕조 구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KIA는 16일 FA 내야수 김주찬과 2+1년 계약금 15억원 연봉 4억원 등 총액 27억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주찬은 지난 시즌 주장을 맡아 준수한 개인성적을 거두며 선수들을 이끌고 한국시리즈 제패에 일조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었는지 해를 넘겨 계약이 성사되긴 했지만 팀에 남은만큼 공수에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에 통산 11번째 우승을 달성한 KIA는 올 시즌 V12와 함께 왕조 구축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력의 핵심인

기존 외국인 선수 셋인 헥터 노에시(200만 달러), 팻 딘(92만5000달러), 로저 버나디나(110만 달러)와 일찌감치 재계약했다.

KIA의 V11을 책임지며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MVP를 동시석권한 토종 에이스 양현중과도 연봉 28억원에 2018시즌 계약을 마무리했다.

FA계약 첫째 팀을 우승으로 이끈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팀 타선의 핵이다. 잔류를 택한 김주찬과 베테랑 이범호는 젊은 선수들을 진두지휘한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나지완, 안치홍, 이명기, 김선빈 등은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혔다. 임기영, 김민식, 김호영, 김윤동 등 젊은 선수들도 성장을 거듭했다.

2015년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 3년 간의 리빌딩 과정을 거쳐 우승

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KIA는 김기태 감독에게 장기 집권을 약속하며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과감한 투자로 챔피언 전력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게 했다.

타이거즈는 1980~90년대 해태 시절 4연패 포함 9회 우승을 차지하며 KBO리그를 호령했다. 이후 KIA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우승은 두 번에 불과하다. 2009년 KIA 타이거즈로 첫 우승을 달성했지만 이듬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명가 재건의 꿈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했다. 포스트시즌 진출과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어렵게 잡은 챔피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력 누수를



막았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명가 재건을 위한 필요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2018시즌 한국시리즈 2연패를 위한 모든 구상을 마쳤다. 스프링

캠프 기간 현 전력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달렸다.

부상으로 지난 시즌 전력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 윤석민이 돌아온다면 외부 영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윤석민이 성공적으로

복귀만 해준다면 KIA 마운드는 선발과 불펜 두루 여유가 생긴다.

여기에 우승팀 DNA를 물려받은 어린 선수들이 광복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명가 재건의 꿈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찬, KIA 타이거즈와 27억원 계약...2+1년

“스프링캠프 전까지 운동 전념해 올시즌에도 우승”



KIA 타이거즈 김주찬(왼쪽)이 16일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체결한 뒤 조계현 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테랑 내야수 김주찬(37)이 KIA 타이거즈 '왕조 건설'에 힘을 보태

선수(FA) 김주찬과 계약 기간 3년(2+1년), 계약금 15억원, 연봉 4억원 등 총 27억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0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김주찬은 이듬해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다. 2012시즌이 끝난 뒤 KIA와 FA 계약(4년 50억원)을 체결하며 호랑이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시즌 KIA 주장을 맡은 김주찬은 122경기에 출장, 타율 0.309(440타수 136안타) 12홈런 78득점 70타점의 준수한 성적과 함께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16시즌 동안 155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6(5613타수 1634안타) 116홈런 916득점 655타점 377도루를 기록 중이다.

김주찬은 "계약까지 시간이 걸린 만큼 올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스프링캠프 출발 전까지 운동에만 전념해 올 시즌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체부, 일방통행식 해피한 논리... 슬픈 여자아이스하키팀

“우리선수단 23명 유지하고 +α·2분 간격 교체 특성있어”
“종목 기본적 이해 안돼...보여주기식 단일팀 구성 재고해야”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는 우리 선수단 23명을 유지하고 (북한 선수들) 플러스 일과로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이스하키는 2분 간격으로 교체되는 특성이 있어 선수들이 출전을 못 하거나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종환(6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에서 추진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관련, “북한을 참석시키기 위해 피담 흘려 노력한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같은 날 문체부 관계자도 “아이스하키 종목 특성상 1~2분 간격으로 선수가 교체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와 주무 부처 수장의 답변이 엉뚱하다. 스포츠 특히 아이스하키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듯하다.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의 엔트리는 23명이다. 정부는 기존의 한국 선수들을 모두 남기고 북측 선수를 추가해 '23+α'로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임상권 종목이었다면 개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겠느냐며 ‘남북 평화 조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여자 아이스하키가 민란한 것이다. 선수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일팀이 평화를 상징하고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점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과 대회 흥행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에 토를 치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개막이 임박한 이때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에 희생되고 있는 모양새는 곤란하다.

정부가 지적 쌓이게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유승민(36)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은 SNS에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들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나 또한 이 말을 항상 되새기며 활동한다. ‘최소한 선수단과 소통은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선수들은 미디어의 인터뷰 요청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며 속앓이 중이다. 자칫 자신들의 발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이스하키 전용 링크 건설, 실업팀 창단 등 ‘당근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바른 사회라는 것은 초등학교도 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그동안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건전한 상식과 목표를 가지고 땀을 흘렸다.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주재 남북 체육 회담을 통해 단일팀 문제가 최종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태용 감독, 박주호 · 홍정호 제외... 기준은 ‘현시점’

22일~내달 4일까지 터키 전지훈련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하는 축구대표팀 전지훈련은 새 얼굴 찾기의 성격이 강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규정한 공식 일정인 아닌 탓에 유럽과 중동리그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한 것도 있다. 22명 중 절반 가량이 주축 멤버라고 보기 어려운 이들로 채워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박주호(울산현대)와 홍정호(전북현대)를 제외한 것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다. 5대 빅리그 중 하나로 통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축 선수로 활약하던 두 선수는 지난 1년 간 소속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박주호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쟁쟁한 스쿼드에 밀려 2군 멤버로 떨어졌고, 중국리그로 떠난 홍정호도 아시아쿼터제 폐지와 맞물려 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월드컵 진출이라는 꿈을 위해 올 겨울 K리그를 선택했다. 막판 먹은 총분히 차출이 가능했지만 신태용 감독은 끝내 배제했다. 신태용은 15일 두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자 “분명 좋은 선수다. 내가 (대표팀) 코치 때 함께 있었다”고 답했다.

이름값보다는 현 컨디션에 초점



을 맞춘 결과다. 신태용 감독은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과거의 영광이 아닌 소속팀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한 최근 1년 간의 상황에 주목했다.

신태용 감독은 “1년 정도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가 팀을 옮겼다고 대표팀에 뽑히는 것은 어불성실하다. 이를 하나로 팀을 옮겼다고 대표팀에 뽑힐 것이라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들의 월드컵행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신태용 감독은 “K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뽑을 수도 있다.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

올 것”이라며 자물쇠를 걸지는 않았다.

신태용 감독의 발언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잘하면 언제든 뽑을 수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 비단 두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다.

신태용 감독은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코칭스태프가 K리그 경기 날마다 발품을 팔아 보러 갈 것이다. 좋은 선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부상과 컨디션 저하가 올 수 있기에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명성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도를 걷고 있다.

라이언 기스, 웨일스 축구대표팀 감독 취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라이언 기스(45)가 웨일스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

웨일스축구협회는 16일(한국시간) “크리스 콜먼 전 감독의 후임으로 기스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4년이다.

기스 감독은 1990년 맨유 입단 후 25년간 맨유에서 EPL 우승 13회, FA컵 우승 4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등을 기록했다.

2014년 은퇴 후 맨유 플레이 코치가 됐다. 2013~2014시즌 도중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을 맡기도 했다. 당시 기스는 2승1무1패를 거뒀다. 이후 루이스 판 할 전 감독 체제에서 수석코치를 하다가 2016년 주재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자 팀을 떠났다.

기스 감독은 웨일스 국가대표로 64경기를 뛰었지만 웨일스의 전력이 워낙 약해 월드컵이나 유럽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 본선에는 한 번도 나서지 못했다.